

# 주인에게 News InChrist



주.안.에.교.회.뉴.스.레.터.



# 9

SEP. 2013 Vol.1 No.1

- 새가족들 첫 만남
- 행사 / 포토뉴스
- 평신도 양육 / 훈련
- 교육 / 교역자 코너

주안예교회 InChrist Community Church ph. 818.363.5887 | e-mail: iccc.office1@gmail.com | web: www.in-christcc.org

##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지난 5월 26일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교회’를 지향하며 다운니에서 출발한 주안예교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6월 16일 26년의 역사가 있는 세계비전교회를 주안예교회로 첫 예배의 시작과 함께 하나의 교회가 두 지역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한인 이민교회의 새로운 모델이 되었다.

3개월의 기간에 하나님께서 주안예교회에 하신 일을 돌아보며 최혁 담임목사를 만나 다운니, 밸리 채플의 출발과정, 목회의 방향과 비전, 성도들께 드리는 당부의 말씀 등을 들었다.

‘나의 계획은 없습니다. 주님의 계획을 따라 주안예교회가 갈 것입니다.’

섬기던 교회를 사임한 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개척을 결심하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를 지향하며 출발한 최 목사가 오렌지 카운티를 중심으로 예배당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다운니에 예배처소를 허락하셨다. 그런데 개척에 함께한 밸리지역 성도들을 중심으로 밸리지역에서도 예배드리기를 원하는 건의에 따라 예배당을 찾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세계비전교회를 만나게 하였고, 빠른 절차를 통하여 오늘의 주안예교회가 탄생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에 집중하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주안예교회는 네 가지의 비전이 있다.

**첫째,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에 집중하는 교회이다.** 예배가 예배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교회,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성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도록 돕는 교회가 될 것이다.

**둘째,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섬김과 나눔을 실천하는 교회이다.** 선교와 구제를 함께 생각하며 하나님 나라 확장과 이웃을 향한 사랑의 실천을 병행할 것이다.

**셋째,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이다.** 말씀을 기준삼아 영, 유아부에서 고등부에 이르기

까지 체계적이고 교육적인 커리큘럼에 따라 우리의 자녀들이 미래의 리더들로 성장하도록 도울 것이다.

**넷째, 양육과 훈련을 통해 제자화하는 교회이다.** 신앙은 배우고 훈련함으로 성장할 수 있다. 성도들이 양육과 훈련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제자와 군사로 양성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신앙생활을 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성도 간에 성장과정, 생각, 경험 등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하나된 말씀을 기준 삼고 움직이기 때문이다.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주안에 거하며 말씀 안에서 하나를 이루어 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란다. 말씀을 따라 가면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영광도 하나님께서 받게 되실 것이다. 주안예교회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이다.

위의 목회 비전을 이루기 위해 주안예교회는 구역, 교구와 사역국이 함께 유기적으로 동역하며 평신도 중심으로 사역을 이루어 가는 교회가 될 것이다.

지금 교회의 많은 변화에 적응하기 쉽지 않을 텐데 믿고 협력해 주시는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감격과 은혜 가운데 창립·위임 감사예배



## ■ 다우니 창립예배

뜻을 같이하는 성도들이 모여 최혁 목사님과 함께 주안예교회 개척을 위한 기도모임을 지난 5월 둘째주 목요일(5월 9일) 시작하였다.

150여명으로 시작된 기도모임은 감격과 기쁨, 말씀과 기도축제였고, 3주간의 목요 기도모임 중에 하나님께서는 다우니에 예배 장소를 허락하셨다.

급하게 예배 장소가 결정되고, 주일 오후에 예배드리는 관계로 첫 예배는 준비가 미흡했고 참석인원을 예측하지 못한 어려움이 있었다.

750명이라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성도들이 첫 예배에 참석하므로 예배 공간이 부족하여 예배당 밖에 의자를 준비해서 최 목사의 설교만 듣게 되는 일이 생겼다.

다음은 약 350대 주차하는 주차장이 부족해서 주변 도로에 주차하는 결과가 되었다.

날씨는 더웠고, 예배 환경은 열악했지만 예배에 참석한 성도 모두는 진지했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격과 은혜를 충만하게 체험하는 예배가 되었다.



## ■ 벨리 첫 예배

긴 일주일, 기다림의 일주일... 세계비전교회가 주안예교회로 이름이 바뀌고, 새로운 목사님, 낯선 열광들과의 만남을 기대와 설렘으로 맞이한 주일이였다.

세계비전교회를 창립하고 24년간 시무하시다가 한국 칼빈대학교 총장으로 재임 중인 김재연 목사님이 6월 9일 오셔서 주일예배와 공동의회를 주재하셨다. 최혁 목사님을 위임목사로, 교회 이름을 주안예교회로 변경한다는 두가지 안건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다.

산뜻한 새 주보, 활기찬 찬양, 예배당을 들어서시는 성도님들도 상기된 표정이 역력하다. 달라진 예배순서, 성도님들과 함께 앞자리에 앉아 계신 목사님, 찬양

이 끝나고 김철구 원로장로님의 대표기도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넘쳤다. 임마누엘 성가대의 '불같은 성령' 찬양은 갈급한 성도님들의 심령을 적셨다.

최혁 목사님이 등단, 요한복음 11:38~44을 본문으로 '영광을 보는 교회'라는 말씀이 선포될 때, 모든 성도님들이 한 말씀도 놓치지 않으려고 집중했다.

다우니채플에서 오신 성도님들과 오랫동안 얼굴을 보지 못했던 옛 성도님들과의 반가운 재회, 말씀을 통한 풍성한 은혜의 체험...주안예교회의 아름다운 출발!



## ■ 위임예배

하나님은 주안예교회 벨리채플에서 6월 16일 첫 예배로 영광을 받으시고, 이어 7월 21일 5:00 PM 최혁 목사의 위임예배를 드리도록 인도하셨다.

김재연 목사(한국 칼빈대학교 총장)가 사회를 맡아 위임예배의 순서를 인도하고 김진용 목사가 '덕으로 세워가는 교회' (롬 14:17~20)를 주제로 "자신에게는 철저하되 상대에게는 관대한 사람이 되라", "예수 믿는 자는 부지런하고 열심히 살아야 하지만 덕스러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연 목사는 위임목사를 소개하고 '기도로 목회하라'는 의미를 담아 대형방석을 선물했다.

위임패 증정(윤종화 장로), 선물 전달(안철 장로) 등의 순서에 이어 최혁 목사

는 답사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김재연 목사와 어머니의 염원에 따른 '기도하는 목사'가 되겠다고 말했다.

김인수 목사의 축사, 감사찬양 및 연주와 최 목사의 감사의 말씀, 광고 후 김재연 목사의 축도로 모든 위임예배의 순서가 진행되었다.

외부인사의 초청을 자재하고 간결하면서도 진지하게 진행된 위임예배는 주안예교회 벨리, 다우니 채플의 성도들이 처음으로 한 장소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아름답고 의미 있는 축제였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하시고 전 성도가 하나 되고 함께한 복된 출발인 만큼 주안예교회를 통하여 마음껏 역사하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실 하나님을 기대한다.



# 9월 15일 세리토스채플에서 첫 주일예배

지난 5월 26일 다운니 채플에서 첫 예배로 출발한 주안예교회가 9월 15일 세리토스로 이전하여 보다 좋은 환경에서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주안예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다운니 채플을 6개월만 계약하도록 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앞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세리토스 채플을 허락하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며 최선의 예배와 복음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에 나타내는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차례입니다.

벨리와 함께 세리토스 채플의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여 주안예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새로운 비전을 바라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결단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 주소: 15711 Pioneer Blvd.  
Norwalk, CA 91650

## 리/더/교/육

주안예교회는 평신도 중심의 교회를 지향하고 있다. 교구, 구역활동은 각 사역구과 함께 교회 운영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으며, 구역활동을 위한 교구, 구역, 부구역장 등 리더교육이 7월 27일부터 3주간에 걸쳐 진행됐다.

## 리더 교육을 받고

하나님의 섭리가운데 세우신 주안예교회가 개척한 지 두 달이 되면서 교구와 구역을 섬길 교구장과 구역장을 위한 리더교육이(7월 27일 토요일 오전 7시-12시) 벨리 채플에서 실시되어 저도 참석을 하여 하나님의 지식을 공급받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첫째 주 리더교육에서는 '기도'란 제목을 가지고 목사님과 공부를 하면서 저는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운니 채플 리더들이 목사님께 배운 말씀을 가지고 벨리 채플 리더들을 가르치는 시간에는 배울 때보다 더한 기쁨이 제 영혼에서 솟아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배우기만 할 때보다는 가르칠 때에 그 말씀이 더욱 저의 것이 되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그 다음 주(8월 3일)에는 다운니 비전 채플에서 리더교육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벨리 채플 리더들이 가르치고 다운니 채플 리더들은 배우게 되어 저는 벨리 채플 집사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가르치시는 집사님께서서는 목사님으로부터 배우신 '찬양'이란 제목을 가지고 가르치셨는데 배운 그대로를 가르쳐 주시려고 기록한 것을 차근차근 보시며 열심히 가르쳐주셨습니다.



두 주에 걸쳐 기도, 찬양이란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고 배우면서 저는 새롭게 기도에 대하여 또 찬양에 대하여 깨달은 것이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양을 먹이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지면서 믿음은 현재형으로 이 믿음의 말씀을 우리 구역 식구들에게 전하고 싶은 열정이 충만했습니다.

마태복음 28:19-20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하늘로 가실 때에 믿는 자에게 주신 마지막 지상명령을 위해 현재 저에게 주어진 사역을 현재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 할 것을 결단하는 귀한 시간

이었습니다.

세번째 리더교육(8월 3일)은 다시 벨리 채플에서 모여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 가기 위해 '위임 권위'와 '섬김'이란 제목으로 목사님에게 말씀을 다같이 배웠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은 질서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체계를 따라 예수님의 지체로서 그 지체에게 주어진 사명을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따라 순종하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또 교회에는 여러가지 봉사가 있지만 그 모든 봉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말씀을 나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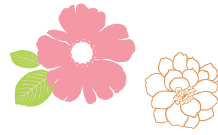
이제 9월이면 공식적인 구역 모임이 시작되는데 이 소그룹 모임을 통하여 한 영혼, 한 영혼이 건강해지는 영적인 축복을 누리기를 기대하며 지난 3주에 걸쳐 귀한 말씀을 나누어 주신 목사님과 전도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합한 백프로 순종의 디아코니아의 리더가 되겠습니다.

리더교육을 통하여 영광받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며 주안예교회를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박경숙 집사





만남의 설렘 '반갑습니다'

기쁨 넘친  
천국의 잔치

주안에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새로 시작한지 이제 2달이 되는 7월 28일 새가족과 담임목사님의 만남인 첫 '주안에 만남'이 이루어졌다.

새가족부 봉사자들은 새롭게 하나님 안에 한 가족이 된 형제자매들을 생각하며 흥분된 마음과 기도로 3주 전부터 준비를 시작했다. Setup, Decoration, 식사준비, 꽃, 간식, 과일, 선물 등을 하나씩 준비하며 어떻게 새 가족들을 환영할까.... 행복한 고민을 했다.

다음 날 모든 봉사자들이 하얀 셔츠와 까만 바지, 산뜻한 앞치마 그리고 활짝 핀 미소를 띄우며 새가족들을 맞이했다. 새가족들이 큰 기대를 가지고 주안에 교회에 정착하기로 결심하신만큼 우리도 이 밤이 천국잔치가 될 수 있게 기쁘게 섬겼다.

우리 모두는 헤어져 있었던 가족이 다시 만난 것처럼 그저 즐겁고 기뻐다. 이 아름다운 저녁이 영원히 이어질 것 같은 평안함과 소망이 우리의 마음과 기도에 차고 넘쳐 올랐다. 주님, 주안에 교회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제 새로 주안에교회의 일원이 되신 새가족들은 예배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진리의 말씀을 배우며 성화되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소망을 가지고 남은 인생을 위해 교회와 가정에서 행복하게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며 신앙생활하기를 바랍니다.

주안에 만남을 위해 준비하고 섬기신 모든 새가족부 봉사자와 그 외에도 처음부터 끝까지 몸을 아끼지 않고 헌신하신 귀한 많은 교회의 봉사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이방길 장로



주안에 만남은..

새가족으로 교회에 등록하고 새가족 양육 프로그램을 마치면 담임목사와 만남의 시간을 갖고 교역자, 사역장로 소개, 목회비전, 교회에 관한 일반 사항, 궁금한 점 등을 진솔하게 대화하며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행복한 만남의 시간을 갖는 것이다. 그런데 지난 주안에 만남은 교회가 개척되고 빠르게 성장하며 새가족들이 교회의 비전을 알고 사역에 참여하도록 돕기 위한 필요에 따라 담임 목사와의 만남이 준비되었다.

7월 28일 벨리 채플에서, 8월 4일 다우니 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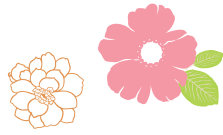
플에서 각각 진행된 주안에 만남은 총 인원 326명이 참석하였으며, 새가족국 봉사자들의 정성어린 준비와 섬김이 돋보인 축제였다.

저녁 식사와 함께 시작된 주안에 만남은 급조되었지만 준비된 교역자 연주팀의 연주로 분위기가 고조되었고, 최혁 목사가 교회의 비전 소개, 질의응답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주안에교회에서 새가족들을 위하여 준비하는 주안에 만남이 회를 거듭할수록 새가족들이 교회에 잘 적응하며, 사역의 현장에 참여하도록 돕는 좋은 프로그램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



섬김의 기쁨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비전

김정 집사



봄인듯 선선한 날의 주일 아침저녁,  
새가족 모임을 향한 나의 발걸음은 설렘과 기대감으로 약간의 두근 거림을 느끼며 교회로 향했다. 어떤 모습들로 새가족을 맞이하고 미소로 대할까? 또, 목사님은 어떤 목회 철학을 말씀하실까? 궁금했지만 큰 기대는 하지 않았다.

보통 모든 교회에서 행해지는 모습들과, 미소와 목사님 목회철학이겠지라는 생각을 내 마음 한편으로는 결론을 지어버리고 말았다.

교회 건물에 들어서니 흰 웃도리에 까만 아랫도리를 입은 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역시 내 생각이 맞구나 하는 생각에 약간의 실망이 슬며시 들고 있던 순간, 거기 까지만 내 실망의 끝임을 알았다.

야외에서의 식사는 어느 레스토랑같은 느낌이였다. 사역자들의 공연은 급조한 느낌이 아니었다. 오래된 그룹과도 같은 연주 호흡이였다. 덕분에 생각지도 못한 색다른 디너쇼를 즐긴 느낌이였다.

그리고, 내가 가장 듣고 싶었던, 목사님의 목회 비전은 나의 만족도 100%였다. 진취적인 생각과 행동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생각이 많이 좋았다. 우리 부부가 같이 기도하던 비전이 목사님의 비전과 비슷하다는 점은 약간 놀라웠다. 열심히 더욱 기도하고, 행하라는 하나님의 뜻인가 하는 생각을 해 본다.

많은 새가족을 인도하고, 섬기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못한 것이 아쉽지만 은혜의 시간이었다.

다음에는 나도 섬기는 자리에 있으리라는 생각과 함께 모든 사람들의 질문을 하나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답해주신 목사님, 많은 분들의 불편함 없이 열심히 봉사해 주신 사역자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감사 드린다.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

정성모아  
사랑합니다

갑자기 준비하게 된 주안에 만남이였습니다. 저로서는 새가족부를 섬기는 것도 처음이고, 주안에 만남도 처음이어서 모든 것이 얼떨떨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장로님의 지시에 맞추어 준비를 했고 봉사자 여러분들께서 정성을 다해 준비했습니다만 무엇인가 부족한 듯한 가운데 시간이 되었고 한분 두분 도착하시는 새가족 분들을 맞으며 제 1차 주안에 만남은 시작되었습니다.

역시 처음 진행하는 주안에 만남이기에 부족한 것도 많았지만 준비하신 여러 봉사자들의 열심과 주안에교회의 미래에 대한 기대와 담임 목사님의 목회 비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주신 많은 새가족 분들의 열정은 그러한 부족함을 덮고 처음 열리는 주안에 만남을 아름답게 진행되게 하였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목회 비전을 듣는 참석자 여러분들의 진지한 모습과 새가족 분들께서 담임 목사님과의 질의응답 시간에 보여주신 열정에서 우리 주안에교회의 밝은 미래를 기대해 보았습니다.

주안에교회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주안에 만남에 참여해주신 새가족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어찌다보니 여러분들을 환영하는 자리에 서있게 되었지만 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는 모두가 주안에교회의 새로운 가족입니다.

저에게는 이번 주안에 만남을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우리 주안에교회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함께 기대하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주님 안에서 마음을 합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함께 걷고 싶은 소망을 품어봅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박용석 집사







특별새벽기도회

새벽기도, 어린양에게 축복을.



다우니 창립 예배

첫 예배 찬양 은혜가 넘쳐요.



교육부

전도사님과 첫 만남, 분위기 진지.



주차 봉사

얌체 주차 꿈도 못 꾸겠네.



벨리 첫 예배

예배당 가득 채운 성도님들 '아멘, 아멘'.



주안에 만남

손따로, 발 따로, 장로님들 율동 귀엽게 봐 주세요.





양육훈련

진지한 수업, 다운니체플 양육반 모범 학생들.



독립기념일 행사

독립기념일 축하 이벤트, 스텝이 어찌 좀 이상...



교육부

선생님, 놀이만 하고 성경공부는 언제해요?



학생 비위 맞추기, 생글생글 선생님.



리더교육

교생실습 중, 구역 리더들 공부.



한어청년부

청년부에 가고싶다... 구김살 없는 우리교회 장래 기동들.



교/사/칼/럼

배우며 가르치며

주안예교회가 시작된 지 두달이 조금 넘은 지금, 교육부는 그 어느때 보다도 풍성하고 뜨겁습니다. 부모님의 손을 잡고 예배에 참석하는 아이들이 늘고, 빈 예배실이 점점 채워지고, 예배를 섬겨주시는 선생님들과 스태프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찬양시간이 되면 큰 아이들부터 말 못하는 어린 아이들까지 모두 온 몸으로 즐겁게 찬양합니다. 아직 손과 발을 잘 가누지 못하는 아이들도 온몸을 흔들며 힘껏 예배하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모릅니다. 말씀 듣는 시간과 성경 공부를 하는 시간에는,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 묻고 답하는 말씀 퀴즈에 참여하는 친구들이 많아졌습니다. 서로 답하겠다고 손을 드는 아이들을 보시며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생각을 하고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점점 더 알아가는 아이들을 보며 함께 자라난 교사들과 스태프들도 은혜를 받습니다.

이렇듯 나날이 성장하는 교육부를 통해, 요즘 저는 이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거룩한 부담감을 느낍니다. 작은 것 하나 하나 모두 보고, 배우고, 따라하는 아이들에게, 좋은 신앙인으로서의 모범이 되기를, 또 예배를 즐거이 여기고 사모하는 예배자의 모습을 갖추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교육부의 성장 뿐만이 아닌, 섬기는 이들에게도 성장을 함께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며, 누구 하나 소홀히 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멋진 작품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초대받은 것이 기쁘기만 합니다.

일손도 부족하고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완벽히 갖춰져 있지 않지만, 때를 따라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아이들이 주님 안에서 사랑받고 거룩하게 구별된 자녀로 자랄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들께서 교육부를 기도와 관심으로 지원해주시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느끼고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숙현(Rachel Kim)  
유년/유치부 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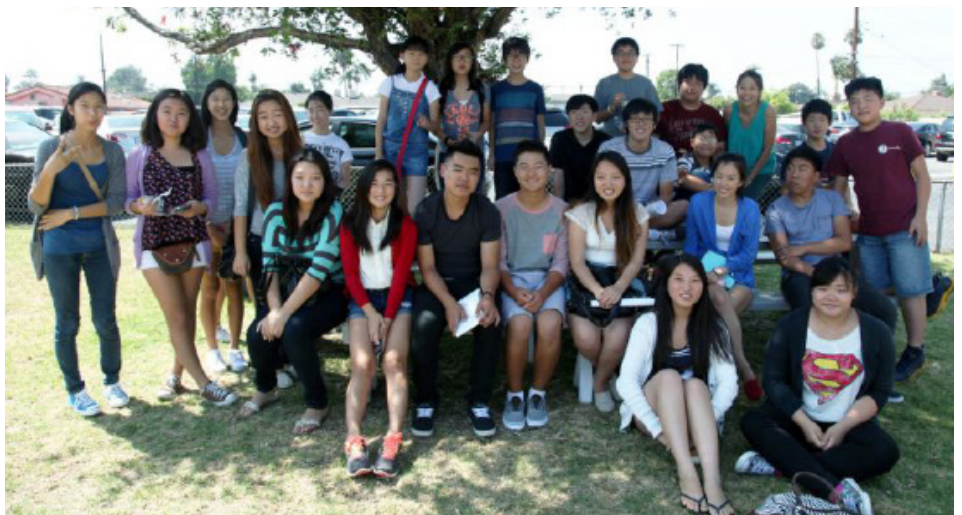


ICCC NEX-GEN 다음세대 교육부



학/부/모/편/지

안녕하세요? 주안예교회 새 가족이 된 정동훈 / 경주 집사입니다. 교회를 옮기면서 가장 걱정했던 부분이 아들 Eugene(5th)과 딸 Sue(1st)의 교회생활이었습니다. 어른인 저희도 아직 모든 부분들이 낯설은 상황에서 예민한 아이들이 무엇보다도 주안에서 잘 양육받고 성장해 주길 바라는 마음은 모든 부모님들의 한결같은 바램일 것입니다. 그러나, 걱정과 달리 우리 부부 보다도 더 잘 적응해 가는 아이들을 보면서, 또 최혁 목사님께서 사명을 가지시고 차세대 사역의 중요성을 강조하셔서 하루가 다르게 아이들 교육부가 안정 되어가고 체계가 잡혀가는것 같아 주님께 감사 드립니다. 앞으로 차세대 교육부가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흔들리지 않는, 올바른 신앙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곳이길 희망합니다. 저희 부모님들과 교육부 사역자님과 상담도 많이 가졌으면 하구요, 부모들과 자녀들과의 관계에 든든한 신앙의 통로로 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E-Mail Newsletter를 통한 부모들과의 커뮤니케이션과 자녀교육 세미나 및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하는 프로그램들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신앙적으로 함께 성장해 갈 수 있는 많은 기회들이 주어졌으면 합니다. 사역자님들과 부모님들이 같이 기도하고, 협력해서 주님이 저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 주님이 보시기에 참 기뻐하실 수 있도록 주님 안에서 잘 양육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주님 안에서 모든 아이들이 행복해지길 기도합니다.





## 교역자를 소개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시는 교역자들을 몇 회에 걸쳐 소개합니다. 편익상 동일한 설문을 드려 하나님과의 만남, 소명, 성도님들께 드리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편집자 주>

### “에스라 7장 통해 사역 깨달아”

박동욱 목사  
(평신도 훈련원)

저는 할머니께서 한국의 초창기 기독교 시절에 외국의 선교사님을 도우며 함께 사역하시던 전도부인(현 전도사)이셨고, 부모님께서 장로님과 권사님으로 오랫동안 귀한 신앙생활을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어려서부터 교회생활을 해왔습니다. 일명 모태신앙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그런 신앙 생활입니다. 큰 굴곡 없이 늘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기쁘고 행복하게 지내오다가 대학교에 들어가서 목사님과 선배들로부터 말씀훈련(제자훈련)을 받으면서 신앙적인 체계와 저의 삶의 목표가 더욱 확실하여졌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목회자가 될 것을 하나님께 약속하는 시간이 있었고, 대학시절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개인적인 약속의 말씀 에스라 7장 10절을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역의 길을 가야할 지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와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에스라 7장 10절)

늘 예수님을 닮고 싶은 마음이 사역에서도 전달되어서 함께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있을 훈련사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자신의 삶을 변화하며, 말씀이 왕성하게 역사하는 개인과 교회가 되도록 힘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현욱 목사  
(목회부)

### “일본유학 중 하나님의 뜻 순종”



예수님을 저의 주님으로 영접하게 된 것은, 20대 중반이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었지만, 주님을 영접하기 전까지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군을 제대하고 일본에서 어학연수를 하는 시간들을 보내면서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 속에서 나를 지켜보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에 가기 전까지 저는 무역을 통한 사업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일본어를 준비하고 일본에 가게 된 것도 모두 그것들을 준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는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음을 나중에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난 후

에, 그 은혜와 감사가 너무 커서 저의 자녀 세대를 위해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미 20대 중반이고 하나님께 쓰임받기에는 늦었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이 자녀 세대로도 잘 키워주셔서 마음껏 사용해 주시길 기도했었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기도하던 중, 저도 하나님 사역만 전적으로 해도 되겠는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목회자의 길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도님들을 보면, 너무 기쁘고 감동이 됩니다. 주안예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분들이 되신다면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 일을 위해 기도하며 함께 섬겨 나가겠습니다.

## 교/역/자/간/중

### God's love from the beginning

When I think about In Christ Youth (ICY), I am reminded of our Heavenly Father's love for His children. One year ago, I came down from Berkeley, CA because I heard that my home church, World Vision Church, was in a very difficult circumstance due to financial issues. When I came to visit early last year, I saw that a small group of youth kids were without a spiritual leader to guide them. God put it in my heart to move back home to be a spiritual leader/older brother to the youth. After several months of praying, I quit my job, said farewell to my best friends, and moved back home in the Valley. At the time, I had no idea what it meant to be a youth group leader. I never gave messages before. I didn't have a curriculum in mind. But there was one thing that God revealed to me: His heart of love for the youth. So I came down with one plan in mind: to love the youth group the way God loved me.

From the beginning, there were various difficulties, but one of them stood out: the youth group was primarily comprised of girls. Though I tried my best to love them, as a young, single, male teacher, I felt my limitations. But God's love for the youth group was far greater than what I could've imagined. Soon after I came down, God miraculously provided the youth group with a female teacher, Grace Kim. God knew that these youth girls needed a female teacher whom they can relate to. And God's love for the youth didn't stop there. God provided the youth with two more teachers – Joe Jung and Connie Yoon.

None of the teachers had any formal biblical training. We weren't experts in youth ministry. But we knew that God loved the youth very much. And so we had one purpose in mind: to love the youth. As older brothers and sisters in Christ, we wanted to pour out God's love to the youth. First, this meant having a lot of fun because for youth, fun = love. We had many dinner hang outs at teachers' houses, and other fun events such as bowling, ice skating, BBQ, movie outings, etc. We also wanted to spiritually equip them so even though we had no idea how, we (with God's grace and help) planned a winter retreat and other events such as Valentine's Day of Compassion where we visited a convalescent home during Valentine's Day to share God's love. We also meditated on our key verse of the year: Beloved, let us love one another, for love is from God, and whoever loves has been born of God and knows God (1 John 4:7).

About two months ago, In Christ Community Church and World Vision Church merged. Again, I am reminded of God's amazing love for His children. He knew that World Vision Church was in a very difficult situation, and out of His love for His church and children, He brought the two churches together. As I think about the upcoming year, I find myself again with many uncertainties. Yet, I am excited and truly believe that ICY will be filled with much joy, laughter, fellowship and spiritual growth because God's love for His children is vast and everlasting.



Pastor Isaac Seong





7월 24일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9월 4일까지 7주간 진행 되는 '풍요로운 삶' 1단계 양육훈련이 다우니 비전채플에서 시작되었다.

평신도 중심의 양육훈련을 계획하고 진행 중인 이 훈련은 그 과정이 매우 철저하고 엄격하게 진행되며 교재는 이미 검증된 '풍요로운 삶'을 활용하고 있다. '풍요로운 삶'은 신앙생활의 기초와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배우는 단계이다. 현재 참가인원은 2개 반 13명이며 장경출, 이정미 집사가 인도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의 가치를 알게 하며 신앙은 배우고 훈련 함으로 성장할 수 있다. 주안예교회 성도는 양육과 훈련의 과정을 통하여 주님의 제자로 세워질 것이다. 그 결과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고, 시대를 향하여 거룩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와 군사로 양성될 것이다.

우리교회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계별 평신도 양육훈련이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돕고 교회의 리더를 양육하며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에 큰 역할을 감당하기를 기대한다.

##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

김카렌 성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중에 산 호제에 있는 식품점에서 최혁 목사님 설교 CD를 우연히 아니 하나님의 은혜로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깜짝놀랐습니다. 그동안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미국 교회로 부터 한국교회 그리고 한국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 왔지만 최혁 목사님 설교가 저에게는 들을 때마다 은혜를 너무 많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LA로 이사하게 하시고 주안예교회에 등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한번 보다는 더 많은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싶었는데 일 때문에 목요일이나 금요일에는 교회를 갈 수 없어서 안타까워 하고 있는 중에 양육훈련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등록을 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주님을 더 알고자 합니다.

그동안 저는 아무런 체계화되지 않고 그저 교회만 왔다갔다 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이번 훈련을 통해서 조금 더 주님을 알아가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 훈련이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말씀에 대한 중요성을 느끼고 저의 믿음의 기초를 굳게 다져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 나는 행복하게 지내고 있을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내가 아플 때에 하나님을 찾았는지 무척이나 후회가 됩니다.

교회는 어릴 때부터 역시 제가 필

요할 때만 다녔습니다. 그리고 세상 것에 휩쓸려 살다가 캐나다로 이민을 갔고 그곳에서 결혼생활을 하다가 이혼을 하고 미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1년이 지나고서야 이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었음을 깨닫게 되어서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주님은 제게 더 넓은 세상을 보게 하시고 처음보다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 주일도 지키려고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6년 후에 똑같은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 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고 노력했는데 왜 항상 저는 이용만 당해야 하는지 왜 다시 이런 일을 저에게 허락하시는지 반항도 해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저에게 믿음생활의 문제가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최근 일년 간은 세상의 일들에는 관심을 접고 오직 주님을 향한 일에만 집중을 하려고 하고 있던 중에 최혁 목사님 CD를 듣고나서 부터는 저 자신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이번에도 역시 어렵지만 주님의 뜻이 계심을 믿으면서 열심히 훈련에 임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섬기기 보다는 오히려 제가 교회로 부터 많은 도움을 받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믿음을 더욱더 다져나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주안예교회의 성도로서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자녀로 비취지기를 소원합니다.

## 인도하져 배웁니다

이정미 집사



하나님의 은혜로 저 자신이 양육훈련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게 되었고 또 말씀을 읽는 훈련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소중한 경험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는 분들과 나누는 일이 무엇보다 소중하고 귀한 일입니다. 인도하며 경험하는 것은 훈련을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제가 더욱 말씀과 가까이할 것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또 저 자신이 너무 성경에 대해 무지하고 지혜나 경험이 부족해 훈련에 임할 때마다 더욱 하나님께 매달리고 도우심을 구하며 성령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은 저를 더욱 성숙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이라고 믿고 감사 드리고 있습니다.

훈련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한분이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싶어서 신청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며 제가 처음 양육훈련을 시작할 때 제가 했던 소감과 동일한데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이 훈련을 통해 경험한 하나님, 그분의 말씀, 성령님의 인도하심, 이런 소중한 체험들을 훈련 받으시는 모든 분들이 함께 체험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함께 성장해 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루 아침에 변화하는 것보다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매일 조금씩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삶을 살아가는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성숙하게 되길 기도합니다.





# “멕시코 원주민들에게 사랑을”



멕시코 엔세나다 시내를 지나 1번 국도를 계속 달리면 오른쪽으로 갈라지는 23번 도로가 태평양 만을 따라 이어진다. 왼편으로 완만한 산비탈을 따라 농장이 있고, 오른쪽은 해변마을들이 군데군데 모여있다.

이곳 농장에서 일하는 원주민들(멕시코인과 다름)을 상대로 이홍기 은퇴목사님이 사역하고 계신다. 베데스다 의료선교팀과 뜻이 있는 교우들이 2년 전부터 이곳을 찾아 원주민들의 숙소를 개량하고, 한방진료를 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데이빗 리 목사님과 김준역 장로님 등 8명의 단기선교팀이 지난 8월 15일 새벽 1시 벨리체플을 출발, 2박 3일 간 원주민 농장 캠프(campo)교회를 찾아 바다 마루공사와의

료활동을 펼치고 성도님들이 모아준 생필품을 전달했다.

교육, 의료, 수도 등 기본적인 사회혜택을 전혀 못받는 이들은 멕시코어도 통하지 않고, 저임금에 움막집에서 원시사회를 방불케 하는 열악한 환경에서 지내고 있다. 휴바다에서 잠자는 이들에게 침상을 만들어주고, 교회를 세워 예배를 드리고, 글을 가르치고 장차 자기종족에게 복음을 전하게 할 사역자를 양성하는 이선교사님 부부는 우리교회의 교우들의 지원과 방문에 늘 감사의 말을 전하신다.

열악한 환경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저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갇힌 원주민들과 우리에게 전해지기를 소원하며 우리의 선교활동이 지속되기를 기도한다.

## 힘든 산행을 좋아하는 이유는...

김경배 집사

나는 지금 Placerita 산행 중 가장 힘든 제 1고지를 걷고 있다. 길게 뻗은 가파른 언덕을 고개 들어 가늠해 보고는 얼른 얼굴을 떨군다. 언덕길을 쳐다만 봐도 ‘기가 격일까 봐’ 땅만 보는 꼬맹이 마음 때문이다. 이 제 1고지의 오름은 가파라서 오르기가 힘이 든다. 햇볕마저 더해지면 땀은 아예 줄줄 흐른다. 가파를수록 온 몸의 근육들은 더욱 격렬히 움직이게 되고, 가슴은 가쁜 숨을 토해내고, 땀이 온 상체와 종아리 다리에서도 솟으며, 심장은 거칠게 뛰고, 손등의 파란 핏줄은 평소보다 두 배로 굵게 커져 돌아난다

약 2년전쯤 교우들의 “같이 산행하자”는 권유를 회피하다가, 독립기념일 연휴에 ‘아이스 하우스캐년’으로 처음 산행을 따라갔다. 엄청 힘들었음은 당연했다. 땀에 젖은 옷을 싫어하는 나는 대장에게 “이게 뭐야? 이렇게 힘들고 온 몸이 땀과 먼지에 젖고, 이 축축한 옷을 입고, 도대체 무엇이 좋다고 산행을 하는지? 나는 정말 이해가 안 되네!” 진심어린 항의성 농담에, “그냥 다녀봐! 너무 좋아, 나중에 알게 돼!”라는 동문서답을 들었다.

다음 주 산행도 따라는 갔다. 안 갈 명분이 없었기 때문이다. 운동신경이 탁월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취미활동처럼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혈압은 약을 복용해야 할 수준이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높고, 배는 볼록 나오고, 스트레스는 매일 만방이었다. 돌싱의 방콕적 행태를 걱정해 주는 교우들과의



산행이니, 따뜻한 배려들도 있었다.

‘힘든 산행’을 결심한 것은 나의 5번째 산행인 이 Placerita에서였다. 이곳은 교회에서 15분 거리에 있으며, 전체 산행구간은 편도 4.5마일로 왕복 9마일이다. 처음 2마일은 완만한 산책길로 시작된다. 이후 1.5마일을 올라 가야 하는데 난이도가 매우 높다. 처음 급경사 오름길을 제 1고지로, 나머지 오름길을 제 2, 제 3고지로 분류한 것은 산행을 쉽게 하려는 피로 명명한 것이다. 남은 1마일 구간은 울타라 길로 이름 짓고 우리는 그렇게 부른다.

피하고 싶은 이 오름의 구간을 40분 정도 올라 제 3고지 중간쯤 다다르면 나만이 인식하는 구간이 나온다. 햇살이 아치형으로 형성된 나뭇가지들로 인해 그늘진 이 짧은 산책길에 접어들기만 하면 언제나 미소가 지어진다. 힘들어 평안함으로 바뀐다. 힘이 들었음수록 평안함이 나의 몸과 마음을 더욱 온전히 감싸는 기운을 느낀다.

오름길을 제3고지에서 마치면 상수리 나무들이 뿅뿅이 들어찬 1마일의 울퉁불퉁 길이 펼쳐진다. “세상에! 이래서들 산을 오르나! 정말

관찮네!” “아마 나는 산 체질인가 봐!” 감탄사가 계속 터졌던 것 같다! “그래 결심했어! 앞으로 산을 타는 거야!” 너무 힘들어 몸에서 생성된 화학적 반응인 엔돌핀 영향일지도 모른다. 어쨌든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나를 강하게 하는 의욕은 ‘힘든 산행’을 통한 단련에서 비롯됐음을 나는 안다.

이 힘든 산행이 주는 보상은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새로워진 의욕들이다. 이 의욕들은 나의 삶속에서 능동적으로 좀 더 성실히 남에게 무엇인가를 베풀게 한다. 나는 지난 2년간의 산행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었음을 간증할 수 있다.

토요일의 ‘힘든 산행’을 통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강건해지기 위해 기쁨으로 산을 찾듯이, 주일날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교회성전에 올라 영적으로 단련되기 위해 영적 ‘힘든 산행’을 경험해야 한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기 위해, 엄청난 집중력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생활에서도 세상적인 방법을 버리는 회개가 있어야 한다. 이기심과 위선을 버리기 위해 ‘힘든 산행’이 있어야 한다. 힘들지 않은 산행이 나에게 큰 의미나 가치가 있을 수 없듯이, 적당히 안이한 신앙생활도 이제는 나에게 그러하다.

나는 토요일 가는 ‘힘든 산행’을 좋아한다. 그리고 최혁 목사님이 오신 요즘은 예배마다 “힘든 산행”을 경험하기에 주일이 토요일만큼이나 더 기다려진다.





## 주안에 첫 호를 만들고 나서...

..... 첫만남, 첫예배, 첫공부.... 주안예교회가 하나님 은혜로 아름답게 시작하면서 ‘첫’ 역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회소식지 ‘주안에’ 첫호가 나왔습니다. 시작이기에 미약하고, 실수가 많고, 아쉬움이 납니다. 그러나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나머지 반’은 앞으로 곧 채워질 것이라 믿습니다. ‘주안에’는 성도님 모두가 만들어 가는 소식지입니다. 나누고 싶은 이야기, 사역팀 소식, 구역과 교구 모습, 자녀들과 2세대 활동 등을 알차게 담을 것입니다. 기고와 제언, 원고부탁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안예교회의 부흥과 성도들의 아름다운 믿음의 기록들이 차곡차곡 쌓여갈 2호, 3호, 10호, 100호의 모습을 기대하며.... 조용대 장로

..... ‘주안에’ 소식지 첫 호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교회 앞에 내어 놓습니다. 주안예교회가 개척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행하심과 함께하심을 주안에 소식지에 담았습니다. 물론 시작이라 부족한 점과 아쉬운 점이 많지만 앞으로 수정하고 보완하여 향상된 소식지가 발행되기를 기대합니다. ‘주안에’ 소식지는 성도님들 모두가 참여하는 열린 글마당이 될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 교회의 역사를 기록하며 문서선교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주안에 첫 호의 발행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를 위해 수고하신 모든 분들과 글로 참여하신 성도님들께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김경일 장로

### 기자를 초대합니다

주안예교회가 발행하는 월간 소식지 ‘주안에’ News InChrist 사역에 동참하실 기사를 찾습니다. 교회 행사 취재, 인터뷰 등 모든 활동은 훈련을 통하여 도와 드립니다. 문서선교에 헌신하실 동역자의 지원을 환영합니다.

문의 | 김경일 장로 213-604-3925



###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요15:7)

주안예교회 로고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기초로 하여 디자인 되었습니다. 전체 이미지는 성령 하나님 안에서 하나로 예배하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중심을 이루는 불꽃 이미지는 교회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형상화한 것이며 위를 향하는 불꽃의 양끝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손끝을 뜻하며 중앙의 동그라미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 예배시간 및 교회 위치 안내

예배 시간이 9월 15일부터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 주일 예배**  
세리토스채플/ 오전 8:00, 10:00  
밸리채플/ 오전 10:00(봉사자예배)  
오전 11:45
- 영성 집회**  
목요영성집회/ 저녁 7:45 다우니채플  
금요영성집회/ 저녁 7:45 밸리채플
- 새벽 예배**  
밸리채플/ 새벽 5:30(월-금), 6:00(토)  
다우니채플/ 새벽 5:30 비전채플

**밸리채플**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  
**다우니채플** 10629 N. Lakewood Blvd., Downey CA 90241  
**비전채플** 8531 E. Florence Ave, Suite #100, Downey, CA 90241  
**세리토스채플** 15711 Pioneer blvd, Norwalk, CA 90650